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성명		수험 번호				2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보기>와 같이 토론의 내용을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입장별로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며, 입론, 반론, 최종 발언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시작하십시오.

**찬성:** ○○일보에 따르면 유럽의 일부 국가는 지역 선거에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율은 18세~35세의 참여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그 참여자 중 83%는 이를 통해 전보다 자존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도 민주 시민이므로 선거권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반대:** 그 유럽 국가 중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었다가 현재는 보류 중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청소년은 아직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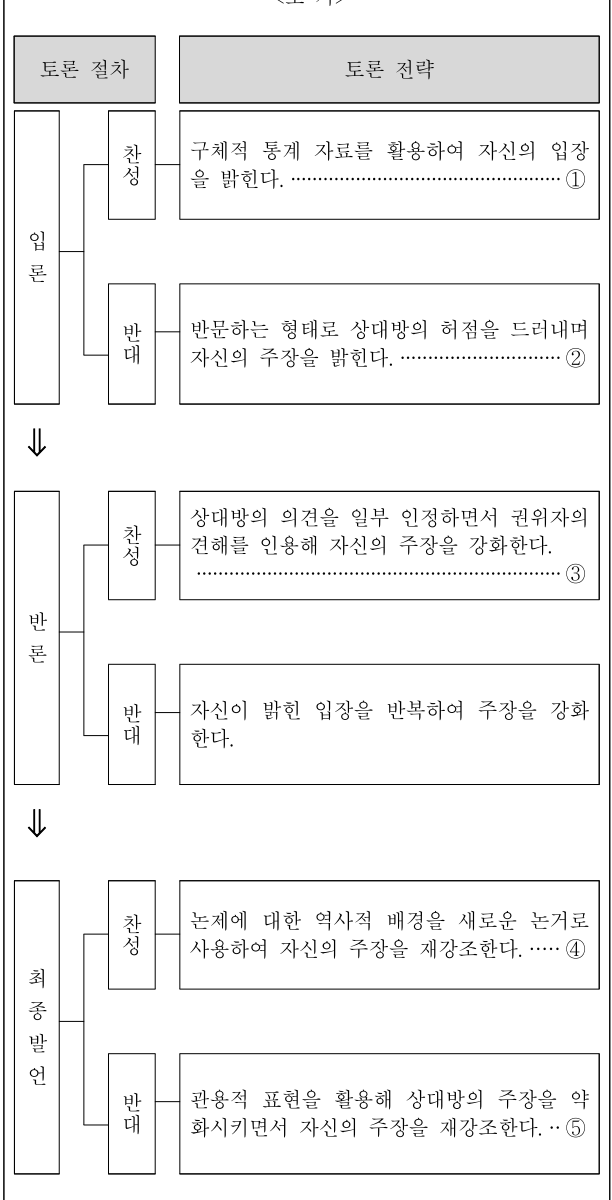
**찬성:** 미성숙한 사람이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피아제와 콜버그는 ‘인간은 청소년기에 이미 성인 수준의 인지능력에 도달한다.’고 했으니,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반대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청소년들은 정치적 관심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청소년들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치보다는 연예인이나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성:** 선거 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119개의 나라 중 82%가 선거 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국제적 변화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상 정립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선거 연령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우리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인들조차 올바른 선거 문화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 16세의 청소년에게까지 선거권을 확대시킨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기>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영상물 시청 후 논술문을 쓰기 위한 개요 작성



**과제 수행 기록** 나의 논술문 개요 작성에 대해서

오늘 작성시간의 과제는 '영상물을 시청한 후 논술문을 쓰기 위한 개요 작성'이었다. 영상물은 사회적 책임 경영의 모범적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은 경제적 수익성 외에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경영 방식이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외국의 모범적 사례를 우리나라 기업의 미흡한 사례와 대비하여 설명해 주셨다. 나는 이것을 시청한 후 주제문을 정한 다음 논술문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글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태를 조사한 후,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글쓰기 계획**

주제문: 사회적 책임 경영..... ㉠

[논술문을 위한 개요]

서론: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필요성..... ㉡

본론

-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태
- 사회적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 단기적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는 경영 의식..... ㉢
  -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제도 미흡
- 분석한 원인별 해결 방안..... ㉣
  -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

결론: 논의를 종합하여 주제를 강조함

2.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제를 다각화한다.
- ② 글감을 찾기 위해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다.
- ③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 ④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기 위하여 토의 활동을 실시한다.
- ⑤ 대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3. ㉠~㉤의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로 구체화한다.
- ② ㉡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외국의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③ ㉢에는 오염물질 정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유발 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 ④ ㉣에는 '2-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구축'을 추가한다.
- ⑤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2-가'를 고려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방식의 제안'으로 수정한다.

[4~5] 다음은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감상문의 초고이다.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목 작성
- '친숙한 풍속화 제시를 통한 주의 환기 → 풍속화의 정의 제시 → 관람한 대표 풍속화 소개 → 풍속화의 의의 서술 → 감상'의 순서로 전개
- 감상 부분을 쓸 때 고려할 점
  - 풍속화 감상의 효용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것
  - 의인법을 사용할 것

제목: ㉠ 풍속화 전시회에 다녀와서

누구나 한번쯤은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아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나머지 학동(學童)들이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을 본 적이 ㉡ 있다. 바로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이다. 이런 그림을 풍속화(風俗畵)라 하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아낸 그림이라는 뜻이다. ㉢ 풍속화의 종류는 크게 사대부의 생활상을 그린 것과 평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가 관람한 작품 중 내 눈길을 끈 것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이었다. ㉣ 이렇듯 풍속화는 과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문화를 후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김홍도의 '서당'은 당시의 수업 방식과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다. ㉤ 또한 신윤복의 '쌍검대무'는 칼춤을 추는 여인들을 감상하는 양반들의 한가한 모습을 자세히 ㉥ 그려져 있다.

[A]

4. 글쓰기 계획에 따라 위 글을 고쳐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풍속화와 함께 한 과거로의 산책'으로 바꾼다.
- ② ㉡은 문맥상 어색하므로 '있을 것이다'로 고친다.
- ③ ㉢은 계획에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전개 순서를 참고하여 ㉤로 옮긴다.
- ⑤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로 수정한다.

5.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렇게 풍속화를 보고 있으니, 풍속화 속 인물들이 그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림 밖으로 나와 뛰노는 것 같았다. 앞으로 그림 전시회를 자주 찾아 관람해야겠다.
- ②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당시 사회의 모습을 공부했던 학교 수업이 풍속화 감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이 속삭이는 즐거운 이야기들이 아직도 나의 귓가를 맴도는 듯하다.
- ③ 풍속화 감상을 통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즐거움을 얻었다. 내게 숨겨놓은 이야기를 들려주려 반갑게 달려오던 풍속화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 ④ 풍속화는 우리 조상들의 해학과 여유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전시회 관람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긍정성과 넉넉함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했다.
- ⑤ 이번 풍속화 전시회 감상은 우리 문화와 조상의 삶을 알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풍속화는 크고 멋진 산수화처럼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소박하고 친근한 멋을 지닌 그림이다.

6.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중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잘못 표기된 나라 이름을 수정하였을 때, 수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단,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라 이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 근거
고려[고려]	golyeo	→	Goryeo	㉠, ㉡ ..... ①
발해[발해]	Parhae	→	Balhae	㉠, ㉡ ..... ②
백제[백제]	Paegje	→	Baekje	㉠ ..... ③
신라[실라]	Silra	→	Silla	㉡ ..... ④
옥저[옥저]	okjjeo	→	Okjeo	㉢, ㉣ ..... ⑤

7. <보기>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용언은 특정한 종류의 체언만을 요구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때의 용언과 체언 사이의 관계를 선택 제약이라 한다.

- ㄱ. 칠수는 (아버지름/ \*강아지름/ \*권력음) 존경한다.
- ㄴ. (강아지가/ 아버지가/ \*권력이) 칠수와 논다.
- ㄷ. 그녀는 매일 (우유름/ \*나무름) 마신다.
- ㄹ. 수진이는 살며시 (눈음/ \*입음) 감는다.
- ㅁ. 선생님이 (아이들음/ \*웃음) 가르친다.

\*는 의미가 어색한 표현임

- ① ㄱ을 보면 '존경하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군.
- ② ㄴ을 보면 '논다'는 짐승을 가리키는 명사만을 주어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군.
- ③ ㄷ을 보면 '마시다'는 액체를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성질이 있군.
- ④ ㄹ을 보면 '감다'는 특정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군.
- ⑤ ㅁ을 보면 '가르치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군.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A]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나) 눈이 내리네  
 바람 맞서 울고 섰는 나무들이  
 눈에 덮이네  
**그대와 걷던 산길**  
 북한산 기슭의 그 외딴 숲막\*  
 함께 앉던 그 자리에도  
 눈이 내려 쌓이네  
 한 해가 저물고 또 한 해가 와도  
**굳은 맹세** 변함 없건만  
 괴로워라 지금 **여기 없는 그대**를 위해  
 나는 술잔을 채울 뿐  
 눈이 오는 날은  
**울고 싶어라**  
 그러나 기약한 **그날**은 갑자기  
 눈처럼 오는 법이 없기에  
**빛나는 아침**을 위해  
 나는 **녹슨 칼날**을 닦으리  
 눈보다 차갑고  
 눈보다 순결한 마음으로  
 깊이 깊이 **사랑을 새겨두리**  
 - 정희성, 「눈 덮인 산길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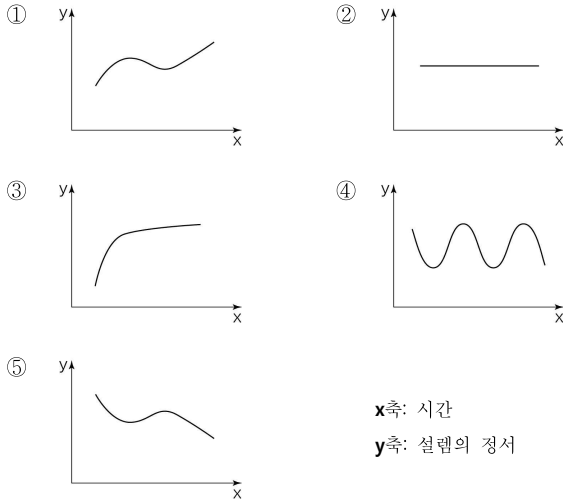
\*숲막: 주막(酒幕)의 옛말

(다) 여명(黎明)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가슴에는 채송화가 무테기로 피어서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 김광섭, 「생(生)의 감각(感覺)」 -

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제시하여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9.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의 대비를 통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제시하여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드러난 화자의 심리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앞두고 우리는 '설렘의 정서'를 느낀다. '설렘의 정서'는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나 희망을 갖게 될 때 상승하며,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실망감을 느낄 때 하강한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시인의 개인적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작품이다. 당시 시인은 지인들과 산악회를 조직하여 등산을 다니곤 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악 회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느라고 산행에 자주 불참했던 것에 비해 시인만이 꾸준히 참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인은 “다 바빠 돌아가는데 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라며 탄식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 시인은 부조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지난날의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현실과 대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① ‘그대와 견던 산길’은 산악회를 조직하여 지인들과 함께 산행을 다니던 시인의 개인적 체험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굳은 맹세’는 시인이 원하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던 지난날의 다짐을 의미하겠군.
- ③ ‘울고 싶어라’는 시인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절로, ‘여기 없는 그때’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함축되어 있군.

- ④ ‘녹슨 칼날’은 시인의 현재 모습을 상징하는 구절로, ‘녹슨’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인 자신의 상태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반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군.
- ⑤ ‘사랑을 새겨 두리’는 시인이 꿈꾸는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불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시인의 내적 의지를 표출한 구절이겠군.

12.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은 각 행을 동일한 종결어미로 끝맺음함으로써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2연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시의 운율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③ 2연과 3연은 서술어의 시제를 달리하여 시적 상황의 선후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2연과 4연은 시적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4연 2~3행은 3연 1행의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3연과 4연이 인과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전기에 물가 조절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상평창이 있었다. 상평창은 곡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시가보다 비싸게 쌀을 구입하였다가 곡식의 가격이 상승하면 시가보다 싸게 방출하여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설치한 물가 조절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실시한 정책은 크게 채매(採買) 정책과 창저(倉儲)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채매란 국가가 물가 조절에 필요한 상품을 시장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주로 당시에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을 하던 면포로 상품을 구입하였다. 연산군 8년, 지주제의 발전과 상품 경제의 발달에 따라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어 상공업 종사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서울의 쌀값이 지방에 비해 2배가 올랐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쌀값이 비교적 싼 전라도로부터 면포를 주고 쌀을 구입하여 서울에 쌀을 풀어 쌀값을 낮추는 채매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면포를 기준으로 하여 쌀값이 싼 지방에서 쌀을 긴급하게 구입하여 들이는 조치로, 공간적 가격차를 이용한 것이었다.

창저란 쌀을 상평창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 27년에는 풍년이 들어 면포 1필의 값이 쌀 15두였으나, 성종 1년에는 흉년이 들어 면포 1필의 값이 쌀 4~5두가 되어 쌀값이 비싸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세종 27년에 ㉠쌀 값에 쌀을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성종 1년에 시장의 가격보다 싸게 팔아 높아진 쌀의 값을 낮추는 창저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해 등 자연 재해를 대비하여 평소에 지역 내의 쌀을 수매·저장해 두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며 시간적 가격차를 이용한 것이다.

채매와 창저는 농사의 풍·흉년에 따라 당시 화폐의 역할을 하였던 면포를 거두어들이거나 유통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상평창의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13. 위 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부는 국내 물가의 상승과 이로 인한 자국의 화폐가치 급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의 값싼 생필품을 수입하고, 저장해 놓았던 곡물을 쌀 값에 유통시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을 통해 기준 금리를 높여 시중에 풀린 자금을 흡수하여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① 상평창은 <보기>의 '중앙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군.
- ②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은 <보기>의 화폐가치의 급락으로 볼 수 있군.
- ③ 채매(採買) 정책은 <보기>에서 정부가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에 해당하군.
- ④ 창저(倉儲) 정책은 <보기>에서 기준 금리를 높이는 것과 그 목적이 비슷하군.
- ⑤ <보기>에서 저장해 둔 곡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시간적 가격차를 이용한 것이군.

14. ㉠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쌀 (면포 1필 당)	작황	지역
①	14두	풍년	전라도
②	6두	풍년	서울
③	10두	흉년	전라도
④	4두	흉년	전라도
⑤	3두	흉년	서울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원수(怨讐)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회려노  
 수래 후량(餓糧)\*을 갖추오고 이름 불러 진송(餓送)하야  
 일길신량(日吉辰良)\*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원노(怨怒)하야 니론 말이  
 ㉠자소지로(自少至老)\*히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로 함께  
 하야  
 죽거나 살거나 너훗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니라나노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내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호자 유신(有信)하야 나를 아니 버리거든  
 인위(人威)로 피절(避絕)\*혀여 쫓피로 여회려나  
**하늘** 삼긴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니 설워 **므슴하리**  
 - 정훈, 「탄궁가(歎窮歌)」 -

\*후량(餓糧): 좋은 음식  
 \*일길신량(日吉辰良): 길한 날  
 \*추추분분(啾啾憤憤):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냄  
 \*자소지로(自少至老):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피절(避絕): 과하여 관계를 끊음

(나) 世愛牡丹紅 세상에선 모두들 붉은 **모란**꽃만 사랑하여  
 栽培滿院中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가꾸었네  
 誰知荒草野 누가 이 거친 초야에  
 亦有好花叢 **좋은** 꽃떨기 있는 줄 알기나 하라  
 色透村塘月 예쁜 모습은 언뜻 속의 달을 꿰뚫었고  
 香傳巖樹風 **향기**는 발두렁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地偏公子少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귀공자 적어  
 嬌態屬田翁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누나  
 - 정습명, 「석죽화(石竹花)」 -

(다) 윤상군(尹相君)이 처음에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였다. 집터 동서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가옥을 건축하고 명칭을 울정(粟亭)이라 하였다. 지금은 또 조금 서편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다. 윤공은 집터를 구할 때마다 오직 밤나무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봄에는 가지가 영성하여 가지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맛이 들어 내가 먹을 수 있으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아궁이에 붙을 땀다. ㉢나는 이리므로 밤나무를 좋아한다.”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붙은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은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격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이나 내가 다룰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찌서 그러냐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싹·꽃·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일정하지 않은데, 다만 이 밤은 모든 물건보다 가장 늦게 나는 것이며, 그것을 재배하기도 매우 어렵고 장구한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자라

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㉔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왕성하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이는 물건으로 이지러지면 차게되고 부족하면 보태지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 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들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시고 크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룻 동안에 아홉 번씩 승진하여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나간 나무와 같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바가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중략>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 되려는 것이요, 그 중지되는 것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니, 곧 ㉔이지러진 것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며, 부족한 것은 보태질 수 있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물건에 다가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니, 곧 불은 건조하며 물은 습한 것이어서 물건이나 나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곧 공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성장함과 같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공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자신의 몸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설(說)을 짓는다.”라고 하였다.

- 백문보, 「율정설(栗亭說)」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의인화를 사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이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대조적인 소재를 들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16.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의 ‘궁귀’와 (나)의 ‘모란’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 ② (가)의 ‘사방’과 (나)의 ‘외진 땅’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의미한다.
  - ③ (가)의 ‘유신’은 대상이 화자를, (나)의 ‘향기’는 화자가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 ④ (가)의 ‘하늘’과 (나)의 ‘농부’는 화자의 신세를 위로하는 존재이다.
  - ⑤ (가)의 ‘므슴하리’는 체념을, (나)의 ‘붙이누나’는 안타까움을 내포하고 있다.

17. **좋은 꽃**과 **밤나무**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작가의 관심과 애정이 담겨져 있다.
  - ②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작가의 외로운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 ③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세가 내재되어 있다.
  - ④ ‘좋은 꽃’은 작가의 처지를, ‘밤나무’는 작가의 과시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좋은 꽃’은 냉소적으로, ‘밤나무’는 자조적으로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18.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평생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㉒: 궁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③ ㉓: 동경하는 사물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대구적 표현으로 사물의 성질과 윤공의 삶이 유사함을 역설하고 있다.
  - ⑤ ㉔: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에 대해 ㉠‘표현론’과 ㉡‘모방론’은 끊임없이 양립해 왔다.

우선, 예술이란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라는 입장이 표현론이다. 예술가는 그것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신으로서 그의 창작은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신적 창작이다. 피그말리온이 본인이 만든 조각상 갈라테아의 현신과 실제 사랑에 빠졌다고 전해지는 피그말리온 신화는 표현론의 입장을 잘 드러내 준다. 그래서 표현론은 피그말리온형으로 불린다.

반면 제옥시스가 포도 넝쿨을 그렸더니, 참새들이 포도송이를 따먹으러 달려들었다는 제옥시스 전설은 예술을 모방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모방론은 예술이란 새로운 현실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현실을 최대한 똑같이 베끼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창작이다.

㉢피그말리온형은 우리가 흔히 마법의 시대라고 부르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조각상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상과 현실이 분리되기 전에는 가상과 현실은 언제든지 ㉣자리바꿈할 수 있었다. 이 시대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신상(神像)을 창작함으로써 비로소 신을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신을 모신 신전을 중심에 놓고 자기들의 삶의 세계를 세웠다. 올림피아의 신들이 없는 그리스 문화란 생각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예술이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여기에 예술의 본질과 진리가 있다는 믿음이 피그말리온형의 예술론이다.

반면 ㉤제옥시스형의 시대는 인간의 상상력이 합리적 사유에 억눌리는 시대로 가상과 현실이 분리된 시대이다. 가상이 현실에서 분리될수록 둘을 다시 연결하고픈 인간의 욕망도 그만큼 강해지고, 그럴수록 화가들은 더욱 더 눈속임에 집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원근법, 색채론, 비례론 등 다양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것이다. 알베르티는 ‘원근법이란 눈에서 그물처럼 뻗어나간 시선의 그물로 사물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학의 힘으로 화가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그 대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23. 위 글의 중심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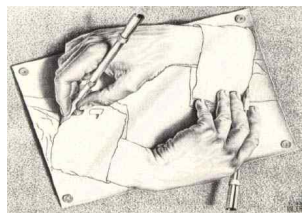
- ① ㉠과 ㉡ 중 지향해야 할 이론은 무엇인가?
- ② ㉠과 ㉡의 바탕이 되는 근원 설화는 무엇인가?
- ③ 신에 대한 ㉠과 ㉡의 공통적인 인식은 무엇인가?
- ④ 예술의 본질에 대한 ㉠과 ㉡의 시각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⑤ ㉠에서 ㉡으로의 변화가 갖는 미술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24. ㉢와 가장 유사한 예는?

- ①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본뜨기 위해 윤곽선을 그린다.
- ② 침대를 만들기 위해 훌륭한 목수가 제작한 침대를 찾는다.
- ③ 용이 날아오르도록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찍어 그림을 완성한다.
- ④ 3차원의 정물을 평면에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 모눈종이에 옮긴다.
- ⑤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장소들 중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는다.

25. <보기>의 밑줄 친 시각으로 ㉥를 비판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에서, 그리는 손들]

이 작품은 ‘그리고 있는 손’이 ‘그려진 손’으로부터 다시 그려지는 그림이다. 이는 예술가가 작품 창작을 통해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동시에 작품도 예술가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술가와 작품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으며 평등한 소통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① 원근법을 이용한 표현은 대상을 모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 ②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 ③ 가상을 배제한 합리적 표현은 가상과 현실의 일시적인 자리바꿈일 뿐이다.
- ④ 화가가 대상을 정복하려는 태도는 작품이 화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것이다.
- ⑤ 과학에 대한 맹신의 태도는 가상을 표현하려는 예술가의 순수한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26.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와 성격이 같은 것은?

<보 기>

‘자리바꿈’은 합성된 후 ‘-ㅁ’(접사)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다.

[(자리 + 바꾸다) + (-ㅁ)]  
 합성  
 파생

- ① 잠꾸러기 ② 팽이치기 ③ 부딪치다 ④ 개똥벌레 ⑤ 호두과자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더우면 오고 추우면 돌아간다.  
또 추우면 오고 더우면 가기도 한다.

[가] 언제나 패를 짜서 먹이를 찾아갔다가 패를 지어서 돌아온다.  
이것은 후조\*의 생리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후조도 있다.

지난 가을—포도 위에 가로수 잎이 깔릴 무렵이니까 아마 시월 중순경인가 보다.

민우(民雨)가 을지로 6가로 해서 동대문 밖 속소로 돌아오니까 웬 구두담이 아이놈이 불꽃 앞을 막아서면서 양복 소매를 잡아 흔든다.

[중략 줄거리] 구철은 민우를 만나 아버지와 계모의 구박 등 부산을 떠나게 된 사연을 털어 놓으며 눈물을 흘린다. 구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준 민우의 호의에 보답한다며 영화 구경을 시켜 주고 민우가 퇴근할 때마다 매번 길목에서 기다린다. 크리스마스 전날 구철은 거절하지만 민우는 구철이에게 옷을 사라고 돈을 준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철은 민우에게 신발을 사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 뒤 구철이는 민우 신을 닦을 때마다 걱정을 했다.  
㉠“자식이 어제도 만났는데 곧 가지고 온다면서…….”  
하고 혼자 투덜거렸다.  
오월 초순 어느 토요일, 이날 민우는 어느 때보다 좀 일찍 돌아왔다.  
의자랑 연보통을 그대로 둔 채 구철이는 보이지 않았다.  
변소이라도 갔나 하고 민우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옆 뒷골목 안이 활자하다.  
각다귀들의 싸움이거나 하고 민우는 담배를 피우면서 한동안 기다렸으나 구철이는 쉬이 돌아오지 않는다.  
싸움 구경이라도 하나 보다 하고 민우는 골목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선다.

[A] 구두담이 아이놈이랑 너댓 둘러선 가운데 뒤꼍로 봐서도 말쑥하게 차린 청년 하나가 누군지를 마구 쥐어박고 있다.  
청년은 고무신을 끌고 한 손에 구두 한 켤레를 들었다.  
맞고 있는 아이가 혹 구철이가 아닌가 해서 다가가자니까,  
“선생님 가시오. 오지 마시오, 아무 일도 아임더.”  
코피로 해서 얼굴이 엉망이 된 구철이다.  
“아니, 구철이 이게…….”  
구철이는 연신 피를 뺀고 입 언저리를 문지르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절망적인 소리를 지른다.  
㉡“선생님은 가이소, 아무 일도 아니요. 가시오, 선생님.”  
그러자 청년이 험상궂게 민우를 돌아보면서,  
“당신은 누구요?”  
민우는 얼른 무슨 말이 나오질 않아 한동안 머뭇거리다,  
“아니, 누구라기보다도 이게 대체…….”  
이 틈을 타서 구철이는 그만 골목 막바지로 사생결단 내달아 버렸다.  
구철이가 골목 막바지에서 옆으로 꺾일 때에야 비로소 청년은 당황하면서,  
“요런…….”  
그리고는 뒤를 쫓는다.  
민우는 속으로,  
‘어떻게 됐건 우선은 구철이가 잡히지나 않았으면.’  
하고 모여 선 아이들에게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나 ㉢이놈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고 비실비실 달아나 버린다.

민우는 되돌아 나오면서도 가 볼까 어쩔까 하고 망설이는데 한 아이가 와서 구철이 연장을 거둔다.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아 뒀다가 주겠다고는 것이다.  
민우는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부러 신을 닦이면서,  
“애, 그 땀 땀에 그러니?”  
이놈은 민우를 한번 쳐다보고는,  
“요 앞에 식당에서 신을 훔치다 들켰어요!”  
“아니 구철이가?”  
“또 한 아이하고 들어서 그랬는데 한 아이는 달아나고 구철이만 잡혔어요!”  
㉣민우는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아슬아슬해진다.  
눈을 감고 한동안 진정을 한다.  
‘역시 그래서 그랬구나.’  
하니 쾌짌한 생각과 측은한 마음이 한꺼번에 겹쳐 든다.  
‘이놈을 만나면 호되게 혼을 내 봐야지, 쾌짌한 놈.’  
그러나 이놈을 만나면 아무래도 울음부터 먼저 터지고야 말 것만 같다.  
“하, 고놈 자식 잡기만 했으면 대강이를 그저…….”  
하고 아갓 번 그 청년이 씨근거리면서 돌아왔다.

[B] “어떻게 됐어요?”  
“놓쳤어요!”  
민우는 우선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잘됐다, 했다.  
“아, 이거 봐요, 사서 아직 일주일도 채 못 신은 신인데…….”  
그리고는 고무신과 바꿔 신고는 전차길을 건너가 버린다.  
그런 다음 날부터 구철이는 보이지 않는다.  
나흘째 되던 날 민우는 기동차 정거장 밖 콩나물 할머니 천막을 찾아갔다.  
그런 할머니가 있기는 한데 시장에 나갔는지 문이 걸려 있었다.  
㉤민우는 아침 저녁 출퇴근 때 구철이가 신을 닦던 그 앞에 오면 버릇처럼 발이 밟는다.  
열흘 가까이 해서 구철이가 퍼던 자리에는 땀 아이가 앉았다.  
민우는 신발을 내맡기고,  
“전에 여기서 신을 닦던 구철이란 아이 모르나?”  
“알아요, 일선 지구 미군 부대로 갔어요!”  
“혼자?”  
“아니오, 여럿이 패를 짜서 가는 데 끼어서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구두 닦는 아이들이 패를 짜서 미군 부대를 찾아 돈벌이를 간다고 한다.  
언제 오느냐니까 가을에 온다고 한다.  
팔월도 지났다. 지루한 여름이었다.  
구월도 저물었다. 더디 오는 가을이었다.

[C] 포도 위에 가로수 잎이 깔리기 시작하는 어느 날, 민우는 문득 하늘을 쳐다본다.  
어디선가 기러기 한 떼가 ㅈ 꼴로 정연히 열을 지어 날아오고 있다.  
인제는 구철이도 오려나—하니 민우는 몹시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 오영수, 「후조」 -

\*후조: 철을 따라 살 곳을 바꾸는 새

2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각박한 시대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따뜻한 인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자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조류에 맞춰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간 유형과는 다른 예외적인 인물을 제시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① ‘더우면 오고 추우면 돌아간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② ‘언제나 패를 짜서’는 한국전쟁이라는 절망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③ ‘때를 지어서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따뜻함이 살아있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
- ④ ‘이것은 후조의 생리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가는 인간의 숙명을 보여준다.
- ⑤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후조’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인정이나 의리와 같은 본연의 마음을 드러내는 인간 유형이다.

29. 위 글의 내용을 영상물로 만든다고 할 때, [A]~[C]의 구성 의도에 맞는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성 의도	연출 계획
[A]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	가쁜 호흡이 섞인 말투로 연기한다. ..... ①
		코피의 붉은 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얼굴을 분장한다. .... ②
[B]	인물의 심리를 드러냄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얼굴 표정을 오버랩한다. .... ③
		인물의 내적 독백을 내레이션 처리한다.
[C]	작품의 분위기를 전달	카메라 시선을 가로수 잎의 근경에서 기러기 떼의 원경으로 이동한다. ..... ④
		슬픈 느낌의 배경 음악을 사용한다. ..... ⑤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초조해하고 있다.
- ② ㉡: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켜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 ③ ㉢: 내막을 숨긴 채 눈치를 보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신을 이용한 구철이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 ⑤ ㉤: 소식이 없는 구철이에 대해 궁금해하며 걱정하고 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이상 부위를 치료하게 된다. 약물을 투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약물을 바르거나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약물의 방출량이나 시간 등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단순 약물 방출'의 형태이다. 단순 약물 방출의 경우에는 약물이 정상 조직에 작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특히 항암제나 호르몬제와 같은 약물은 정상 조직에 작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招來)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국부적인 부위에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擡頭)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약물의 방출량이나 시간 등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동적 약물 방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도성 고분자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특히 '폴리피롤'이라는 전도성 고분자의 활용이 유력시 되고 있다. 폴리피롤은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전압에 의해 이온들의 출입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피롤에 전압을 가하면 부피가 변하게 된다. 폴리피롤에는 이온 형태의 도판트\*가 들어 있는데, 이 도판트의 크기에 따라 부피 변화 ㉢양상(樣相)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도판트의 크기가 작을 경우, 폴리피롤에 음의 전압을 가하면 폴리피롤 내에 음전자가 늘어나는 환원반응 [A]이 일어나게 되고,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크기가 작은 도판트 음이온이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폴리피롤의 부피는 줄어든다.

한편 도판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환원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도판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대신 폴리피롤 외부에 있는 양이온이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하여 폴리피롤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 폴리피롤의 부피는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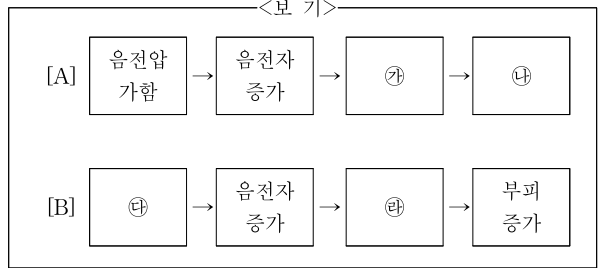
이처럼 폴리피롤에서 도판트가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하면, 도판트를 이온 상태의 약물로 ㉣대체(代替)할 경우 전압에 의해 방출량이 제어되는 능동적 약물 방출 시스템으로의 응용도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폴리피롤 합성 과정에서 ㉤약물을 직접 도판트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약물의 방출량은 많지만 도판트로 합성이 가능한 약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약물이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전해질 내에서 ㉥도판트와 약물을 치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치환되는 전해질 내의 약물 이온의 밀도가 높아야 다양한 약물을 폴리피롤 내에 넣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판트 전부가 치환되지는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 약물의 방출량은 적어지고, 제조 ㉦공정(工程)이 다소 복잡하다.

\*도판트: 전기 전도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불순물

3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폴리피롤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 ② 능동적 약물 방출의 대표적인 방법이 적용된 사례는 연고나 주사제 등이 있다.
- ③ 약물은 정상 조직에 작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만 들어진다.
- ④ 단순 약물 방출은 원하는 때에 필요한 만큼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 ⑤ 전도성 고분자를 활용한 약물 투여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보기>는 [A]와 [B]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①	음이온 방출	부피 감소	음전압 가함	양이온 유입
②	음이온 방출	부피 감소	음전압 가함	음이온 유입
③	양이온 유입	부피 증가	음전압 가함	음이온 방출
④	양이온 유입	부피 증가	음전자 감소	음이온 방출
⑤	음이온 방출	부피 감소	음전자 감소	양이온 유입

3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도판트로 합성이 가능한 약물의 종류에 제한이 있다.
- ② ㉢는 전해질 내의 약물 이온의 밀도가 높아야 한다.
- ③ ㉡와 ㉢는 모두 전압에 의해 약물의 방출량이 제어된다.
- ④ ㉡는 ㉢보다 제조 공정이 단순하다.
- ⑤ ㉢는 ㉡보다 약물의 방출량이 많다.

34. ㉦~㉨의 사전적 의미가 잘못된 것은?

- ① ㉦: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함.
- ② ㉧: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남.
- ③ ㉨: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상태.
- ④ ㉩: 다른 것으로 대신함.
- ⑤ ㉪: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작업 단계.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日出猿生員(일출원생원)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描過鼠盡死(묘과서진사)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黃昏蚊檐至(황혼문침지)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夜出蚤席射(야출조석사)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 대네.  
 - 김병연, 「원생원(元生員)」

위 노래는 김삿갓이 북도 지방의 어느 집에 갔다가 그 곳에 있던 마을 유지들을 놀리며 지은 시이다. 이는 ‘동음이의(同音異義)’라는 우리말의 특징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각 구절 끝에 그 지역의 유지인 원 생원(元生員), 서 진사(徐進士), 문 침지(文僉知), 조 석사(趙碩士)를 같은 소리인 ‘원숭이, 쥐, 모기, 벼룩’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마땅치 않은 상대들을 직설적이지 않은 어조로 비난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조선시대 시문(詩文)의 창작에서는 주제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표와 기의의 복합적인 결합 관계에 의한 의미 분화 현상을 활용하였다. 이는 ㉠다의어와 동음어를 포괄한 개념인 ‘동음이의현상’으로 조선시대 시문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하나의 기표와 복수의 기의를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지봉유설』에 나타난 구절을 보자.

의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물을 건너게 되었다. 중류쫘 왔을 때 바람을 만나 배가 얹어지려 하자 의원은 돌아앉아서 ‘리중탕(理中湯)’을 얻거꾸 외고 있었다. 이윽고 바람이 자서 물을 무사히 건너자 여러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의원은 대답하기를, “대개 배가 아프면 리중탕을 쓰는 것이 구급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말로 배[腹]와 배[舟]가 같은 음인 까닭에 이렇게 말한 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모두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이 이야기는 동음이의현상이 일상적인 언어활동에서 나타나는 한 예이다. ‘의원’은 어원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두 단어를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해 위험한 문제 상황에서 해학적 행동을 하여 주위에 웃음을 자아냈는데, 이에서 선인들의 뛰어난 언어 감각과 재치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자 가자’라는 민요에는 ‘가자 가자 감나무야/ 오자 오자 옷나무야/ 방구뽕뽕 뽕나무/ 바람솔솔 솔나무’에서와 같은 유사한 청각 영상의 연상을 활용하여 이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동음이의현상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시가 양식으로는 나물타령, 나무타령, 장타령, 각설이타령 등 전통동요를 중심으로 하는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유사한 청각 영상을 연관시켜 중의를 표현하는 동음이의현상은 ‘바다는 왜 바다일까요? 소리 나는 대로 바다를 발음하면 ‘반아’가 됩니다. 뭐든지 잘 받아주어서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현대에도 발화 상황에서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할 때 적절히 사용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문장이나 어구에 동일한 청각 영상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낱말의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거나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경우이다. 가령 ‘말하기 쪼타 흐고 놉의 말을 마를 거시/ 놉의 말 내 흐면 놉도 내말 흐는 거시/ 말로써 말이 만호니 말

마름이 쪼해라’에서는 ‘말’이라는 기표를 반복하는 동음이의 현상을 활용한 까닭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서도 언어 사용에 대단히 신중했던 당대 사회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35. 위 글에 대한 효율적인 읽기 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동	내용
사전 조사	언어의 특징에 관한 배경 지식 및 전문 용어 조사..... ①
진술 방식 탐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 ②
내용 구조 분석	한시를 전반부에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 ③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④
논지 파악	조선 시대 시문에 나타난 동음이의현상의 효용성..... 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의적으로 현실을 비판할 수 있겠군.
- ② 어원적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겠군.
- ③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군.
- ④ 고금을 통해 활용되어 온 우리말의 특성이겠군.
- ⑤ 문학 작품에서 활용하면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37. [A]의 사례를 추가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이므로 물을 물 쓰듯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달래 먹고 달래 가자/ 쉬영 먹고 쉬어 가자/ 찔레 먹고 찔레 가자.
- ③ 눈이 온다. 나무에겐 초록색 잎눈이..... 꽃에게는 분홍색 꽃눈이......
- ④ 이제 저녁노을 너머로 해가 지네요.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면 이 해도 다 가게 되겠지요.
- ⑤ 산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데 낮이 잘 들어 한 나절 만에 땀감을 한 지게 가득 들고 돌아왔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체조 선수들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유난히 회전 연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철봉에서 뛰어 올라 공중에서 두 세 바퀴를 회전하고 멋지게 착지하는 연기는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 내게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체조 선수가 회전할 때 팔이나 다리를 굽힌 채 회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순식간에 몇 바퀴를 돌 수 있을까? 결론 부터 말하자면 체조 선수들의 회전 연기 속에는 예술적인 측면 외에도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분히 과학적인 행동이 섞여 있다.

어떤 물체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돌림힘\*이 있어야 한다. 돌림힘이 없으면 물체는 회전할 수 없다. 돌림힘이 발생하여 물체가 회전하게 되었을 때, 회전하는 모든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각운동량이라고 한다. 각운동량은 회전체의 질량과 속도, 그리고 회전 반경\*을 곱한 값이다. 일단 생겨난 각운동량은 외부의 돌림힘이 더해지지 않는 한, 회전하는 동안에 질량과 속도, 회전반경의 곱이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면서 그 운동량을 ㉠보존하려 하는데 이것을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물리 현상 중에서도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전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 의자를 적당히 회전시킨 후에 추가로 돌림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양 팔을 벌리면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다시 양 팔을

[A] 가슴 쪽에 모으면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 대략 머리와 엉덩이를 잇는 신체 중심축을 회전축이라고 할 때, 양 팔을 벌리면 회전 반경은 커지나 전체적인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양 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면 다시 회전 반경이 작아졌으므로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체조 선수들의 회전 연기도 마찬가지다. 체조 선수가 천천히 회전하기를 원할 때는 몸을 펴서 속도와 회전수를 최대한 줄이지만, 빠른 회전을 원할 때는 몸을 굽혀 회전 반지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조 선수들은 공중 회전 후 착지하는 순간 팔을 힘껏 펼쳐 보이는데 이는 관중을 위한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회전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한 과학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돌림힘(토크, torque):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  
\*회전 반경: 회전의 중심축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즉 반지름

3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각운동량의 개념
- ② 각운동량의 발생 조건
- ③ 각운동량 보존의 사례
- ④ 회전축이 각운동량에 미치는 영향
- ⑤ 회전체의 질량과 회전 속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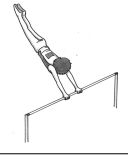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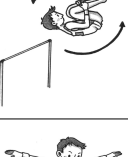


39. [A]를 바탕으로 할 때, 속도 변화의 원인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3점]

<보 기>

ㄱ.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ㄴ. 실에 돌을 묶어서 돌리면서 실의 길이를 늘리면 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ㄷ.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아령을 주면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ㄹ. 달리는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다음은 철봉 경기 해설의 일부이다.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경기 장면	해설 내용
	회전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면 몸을 펼 수 있는 한 쪽 펴야 합니다..... ①
	저렇게 발을 철봉에 대고 돌면 몸을 펼 때보다 같은 힘이라도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②
	몸을 붙여서 회전 반지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빨라져서 여러 번의 회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③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은 회전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착지하려는 계획적 행동입니다..... ④
	1등 한 선수의 키가 가장 작네요.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조건이 같다면 작은 선수가 회전 속도나 회전 수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⑤

41.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아이는 모래를 가지고 장난하기를 좋아한다.
- ② 그 사람의 목걸이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
- ③ 이 양식은 겨우살이를 위해 갈무리된 것이다.
- ④ 스승님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남기고 있다.
- 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라 소중한 지니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上)이 인견(引見)하여 가로되,  
 “연성옹주로써 경에게 허혼(許婚)하노라.”  
 지경이 땅에 엎드려 가로되,  
 “신이 의외에 이 같은 하교(下敎)를 듣사오니, 천은(天恩)이 지중(至重)하나 신이 참판 최홍일의 여식을 취하여 행례(行禮)를 끝내고 승패(承牌)하여 이르렀나이다.”  
 회안군이 계하(階下)에 있다가 상께 눈 주어 가로되,  
 ㉠“비록 납폐(納幣)\* 전안(奠雁)을 하였으나 합궁(合宮) 전이오니, 이제 간택(揀擇)하나, 상명을 따름이 신자(臣子)의 직분이오니, 기억하지는 못하오리다.”  
 상이 화난 얼굴로 가로되,  
 “니를 사랑하여 부마(駙馬)를 정하였거늘, 어찌 사양하느냐?”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닿아 가로되,  
 “최녀로 성례함이 없사오면 어찌 감히 방은택(房恩澤)을 사양하리이까?”  
 상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네 불과 소년 장원하여 세상에 환세(幻世)\*코자 하여 옹주인 줄을 엮이 여김이라, 가장 범람하도다.”  
 지경이 머리를 조아려 가로되,  
 “신이 어찌 또 감히 기망하여 아뢰리까. 사람마다 초방은택(椒房恩澤)을 원하옵거든 어찌 엮이 여기오며, 신의 나이 어리오되 조정 명사의 무리 연석(宴席)에 모였사오니 불러 물으소서”  
 상이 변색(變色)하여 가로되,  
 ㉢“합궁 전은 남이라. 옛 증참(證參)이 있으니 성묘조(聖廟朝)에 경애공주를 길례(吉禮)하고 합궁 못하여서 죽으니 파혼하고 부마위를 거두시니, 네 위업이 성묘(聖廟)에 더하냐?”  
 지경이 가로되,  
 ㉣“신은 그와 다르나이다. 그때 공주 세상을 뜨시고 신은 최씨 살아 있사오니, 신이 부마 되었으면 최씨 청춘 과부 되었으니, 전하의 관대하고 어지신 덕택으로써 신하의 인륜을 차마 어찌 끊으시리이까?”  
 회안군이 가로되,  
 “혼수 예물을 거두고 처녀를 다른 데로 보내면 어찌 홀로 늙으리요?”  
 지경이 노하여 가로되,  
 “자기가 당초에 소관에게 구혼하다가 최가에 정한 고로 허치 아니하였더니, 일로 혐의를 이어 전하께 천거하여 폐군(弊君)\*  
 아무한 죄를 면치 못하리도다. 신하의 자식이 많거늘 고이한 소인의 간사(奸邪) 불계(不計)를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의 불명(不明)이로소이다.”  
 상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회안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네게 작은 임금이라. 내 앞에서 욕하고 나를 어두운 임금으로 능멸(凌蔑)하니,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네 아버비를 죄 주리라.”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전하, 중흥 십구 년에 일월 같사은 성덕이 심산궁곡(深山窮谷)에 미쳤거늘, 유독 소신에게 불명하시고 무거(無據)하신 정사가 이러하시니, 죽어도 항복치 아니하리이다.”

[중략 줄거리] 제상 윤현의 아들 지경은 결국 최참판의 딸 연화와 파혼하고, 옹주와 혼인한다. 그러나 이후 지경은 옹주를 돌아보지 않고 연화와 애정관계를 지속한다. 이에 장모인 경빈 박씨는 자신의 궁중 권력암투를 비판하고 딸을 박대하는 지경을 못마땅하게 여겨 벌을 내려달라 여러 차례 임금에게 청한다.

상이 가로되,  
 “저리 미운 놈을 죽이지 못하니 내 딸 낳은 죄로다.”  
 경빈 박씨 전하여 가로되,  
 ㉡“윤부마가 날과 무슨 원수관대 이전부터 죽고 남지 못할 죄로 진달하더니, 또 오늘 이런 말을 들으니 다른 말은 이르지 말고, 심정승·남판서와 동심하여 조광조를 죽인 듯이 되어 가니, 뜻을 자세히 물어 알고자 하나이다.”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정 나와 거루고자 하다가는 속을 것이니 잠자코 계시소서. 왕래하던 편지 두 장이 있고, 군사관이 살아 있으니 가장 어려운 것이니, 여러 말씀 마소서 하여라. 더운 뜰에 오래 앉아 있어 목이 마르오니 얼음차나 주소서.”  
 박씨 가장 밋게 여겨, 또 전어하여 가로되,  
 “왕녀를 박대하고 최녀와 화락하여 군부를 경멸하니 부마의 일은 옳을까. 귀양이나 보내어 개과하게 하소서.”  
 상이 가로되,  
 “너를 죽일 것이로되 옹주를 보아 사하나니, 충청도 대흥 땅에 정배하나니 회과하게 하고, 최녀는 광망(狂妄)한 지아비를 미혹케 하여 옹주 박대하는 죄로 함으로써 정배하노라.”  
 부마가 사죄하고 나오니, 윤공이 나와 지경을 크게 책망하고 치죄하려 하니, 지경이 가로되,  
 “부친이 어찌 소자의 뜻을 모르시나이까. 불과 수년이 못 되어 대환이 날 것이니, 소자가 끝내 박씨를 노엽게 하여 정배를 자원함에 부자가 경종(警鐘)\*코자 함이로소이다.”  
 공이 부마의 등을 어루만져 가로되,  
 ㉢“네 팔자라. 일찍 가르친 바 없거늘 지혜 이같이 과인하고 강렬함이 이 같으니, 내 자식 두었다 하리도다.”  
 - 작자미상, 「윤지경전」 -

\*납폐(納幣):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  
 \*환세(幻世): 변하고 바뀌어 무상한 세상. 문맥상 ‘세상에 영합함’ 정도의 뜻  
 \*초방은택(椒房恩澤): 왕비의 거처, 은혜로운 혜택  
 \*폐군(弊君):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사람  
 \*경종(警鐘):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

42.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현실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소신이 뚜렷한 인물을 등장시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여 인물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다.
  - ④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중심인물의 행동 변화에 따라 주요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43.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 월매의 딸 성춘향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이몽룡은 임기가 끝난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돌아간다. 춘향은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의 수청 들기를 거부하며 끝까지 항거하다가 관장을 능욕한 죄로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때 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이 사랑의 약속을 지키며 기다린 춘향을 구하고 탐관오리 변 사또를 벌한다. 모든 사연을 전해들은 임금은 춘향을 이몽룡의 정실부인으로 삼도록 명하고, 이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

- ① 위 글과 달리 <보기>는 여성이 주동 인물로 등장한다.
- ② 위 글과 달리 <보기>는 반동 인물을 응징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 ③ 위 글과 <보기>는 모두 권력에 의한 횡포가 나타난다.
- ④ 위 글과 <보기>는 모두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 ⑤ 위 글과 <보기>는 모두 신분 상승을 이루기 위해 혼인하고자 한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회안군은 신하의 직분을 들어 왕명에 따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② ㉡: 상은 전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 지경은 처지가 다름을 들어 임금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 ④ ㉣: 경빈 박씨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⑤ ㉤: 윤공은 아들의 지혜로운 처신에 감탄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45. ㉠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네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하더니 (        ㉡        )하여 과인의 명을 거역하려는가!”

- ① 감언이설(甘言利說)
- ② 기고만장(氣高萬丈)
- ③ 대기만성(大器晩成)
- ④ 면중복배(面從腹背)
- ⑤ 수수방관(袖手傍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